



feminist



www

98년 6차 총여학생회 집행부 회의 안건지 (98년 3월 16일)

reality modernism feminism

1. 보고 사항

- 1)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해운등식 208, 노수식추진, computer Notebook, ^{3월 30일, 생활이사회,} [↑] ^{식당개혁안문제,}
- 2) 각 국별 보고 회장단 - 자치단체 총회준비위원. 애도래. / 자학 - 대충 다함. 두입술 평상항상!

생활이사회 회의

2. 논의 사항

- 1) 평가 - 두 개의 여성대회와 3.8학내 (문서 참조)

- 2) 자치단체 총회 준비 모임 (문서 참조)

- 3) 총여 10주기 행사 ^{영대회의} ^{10주기행사} ^{총여의 연수생} ^{예비모임 (2월 10일)} ^{취업포럼} ^{Network 형성}

- 4) 세네기 받는 문제 ^{총여사업} ^{sparkling과 연관되어} ^{원부러 통보}

- 5) 한총련 6기 건설에 대하여 (문서 참조)

World Wide web.
[web]

3. 공지 사항

- 1) 3월 20-21일 합숙 갑니다.

장소: 민주 동문회

시간: ?

4. 다음주에는...

- 1) 총여 10주기 행사 실무

(4월)

'여학생 취업간담회'

₩3.8을 치워내고...

3.8을 맞아 외부에서는 두 개의 행사가 개최되었다. 하나는 여연에서 주최한 한국 여성대회였고 또 하나는 양 노총과 여노에서 주최한 전국 여성노동자 대회였다. 우리는 어느 행사가 우리의 문제의식과 맞닿을 수 있을까 곧 우리가 어느 사회단체와 연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어느 행사에 참가할 것인가의 문제였지만) 여연에 대한 반발심에서랄까 (나같은 경우)여노의 행사가 좀 더 마음을 열기 쉬울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때문이랄까 후자의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행사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무너져 가기 시작했다. 대회사가 양 노총 대표들의 엄한 발언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시작으로 노조 사수로 결론이 나버린듯한 노래극까지... 이것이 여성의 날 행사인지 노동자 한마당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물론 노동자들에게는(여성노동자까지 포함해서)그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므로 그런 자리 자체가 의미있을 수도 있다. 내가 그 행사에 적용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배신감까지 느꼈던 것은 아직 내가 그들의 마인드에 근접해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어쨌든 그 행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과연 외부단체와 연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회의만을 남겨준 것 같다.

똑같이 여성문제를 사고한다고 할지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또는 관심분야에 따라 양상은 여러 가지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과 컨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노동자대회를 평가절하할 수는 없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성운동의 다양성을 감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을 벌여 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내에서 벌일 수 있는 운동만을 사고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기존의 여성운동의 흐름에서 한계를 느낀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식의 운동을 사고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통해 기존의 여성운동을 자극하고 나아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너무 원대한 꿈인가?)

자. 그럼 이제 우리의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해볼까?

O.T준비에 바빴기 때문인지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우리의 행사는 너무 급하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결국 충분한 논의는 뒤로한 채 일단 만들어서 붙이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진행되었고 선전기획국의 부재로 짜임새있게 일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을 보지 못해서 효과상의 미흡한 면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또한 고질적인 문제인 일정의 어긋남도 지적되었다. 시일이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의 부족으로 일 진행은 예정보다 훨씬 늦어졌고 결국 일 치워내기의 인상은 더욱 강해졌던 것 같다. 또한 자치단체와 일을 같이 해나감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하고 세련되어야 하는가도 뚜렷이 드러났었다.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일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그것이 얼마나 서로를 지치게 만들었던가?

이번 3.8을 치워내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아마도 우리의 문제의식으로 우리의 행사를 치워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외부행사의 참가는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이라는 것도 알았고 급하게 치워내는 행사 또한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가도 느끼지 않았던가? 우리가 3.8의 중요성을 느끼고 그 의미를 살려내려고 한다면 좀더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은 3.8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앞으로 계속 3.8기념행사를 치워내게 된다면 우리의 문제의식의 수위 또한 높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메이데이처럼 지속적인 행사로 자리잡게 해야하지 않을까? 물론 하나의 달력행사로 전략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럼 이만 총총...

피소가 썼어요.

3. 8 여성의 날 대회 평가서

아이오에오바에클레클사시소세소타짜프테도나니느네노아히요에호마미묘메모아을오라로로로외우 응!

뭐라고 쓰나... 다채로운 행사였고, 재미도 있었다. 그뿐이다. 여성의 날 행사가 그저 여성 운동을 하는 다종다양한 집단들이 모여 각자의 세를 확인하고, 그네들의 성격이 그대로인지,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데 있는 것이라면, 뭐 그리 나쁘지도 않을 것 같다. 다양한 단체들(그러나 여성운동 단체라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보이지 않는)이 그저 모여만 있는 시장바닥의 분위기라고나 할까.

국민의례와 선동무, 성악가 성악가와 허벅지밴드가 언제 한자리에 함께할 수 있을까만, 그래 다 좋다 치자. 박성원과 안치환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긴 하지만,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안될 것도 없지 뭐. 뭔가 알맹이가 있는 행사라면, 이런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치환이 남자라는 것 빼면, 그가 주인공인지 아니면 손님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다. 작년에는 '부모성 함께쓰기 선언'도 나왔다더니, 올해는 함께 외칠 구호 하나 발견하기 어려웠다. 여성의 날 행사에서 받아 온 저기 저 풍선들 같았다고나 할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로 예쁘게 부풀려 있기는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행사가 끝나고 바람이 빠지면 잊혀지고 버려질 운명의 풍선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었다.

요즘 유행어가 되고 있는 '연대'가 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더군. 허무한 몸대주기로 끝나기 않기 위해서는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총여학생회 - 여성 자치단체 총회 기획안(초안)

보내는 기쁨 : 여/성/주/의 제10대 총여학생회

받는 즐거움 : 여성관련 자치단체, 모임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관심있는 개인

이 기획안은 1차 준비모임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1차 준비 모임 : 1998년 3월 16일

참석자 : 여/성/주/의 총여학생회, the other, 이과대 여학생회

0. 들어가며

이번 총회의 의의는 산발적으로 존재해왔던 여성 관련 모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연대의 지점들을 찾아나간다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실, 연세대 내에 여성화/운동 소모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학회, 소모임 내지는 위원회 형식의 모임들이 있었음에도 그것들이 가시화되지 않은채 생겼다가 소멸하던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여성운동에 대한 담론이 효과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통로가 형성되지 못했으며 논의들이 자신의 모임 내로만 '흡수'되어 버리지 않았는가.

자치단체들의 물질적 상황이 열악한 데다가, 어느 모임의 문제의식이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극을 서로 줄 수 없었다는 것도 자치단체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함께 할 지점을 찾는다는 것은 서로를 위로해주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자극과 비판을 하는 과정일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 모임이 자기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고 전문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는 모임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방학 동안 진행하려던 연석회의가 지지부진해졌다. 방학 동안 진행되었던 회의 테이블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당시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짚어내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이번 총여학생회-자치단체 총회가 되었으면 한다.

1. 방학 기간 진행되었던 자치단체 연석회의에 대한 평가

방학 동안 몇 차례, 총여학생회와 약 5개의 자치단체들이 연석회의를 진행했었다. 그러나 몇 번 모이고 나서는 회의가 지지부진해졌다. 이것은 방학이라는 객관적인 상황 때문이면서도 또한 총여학생회나 각 단체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에 더욱 큰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즉, '모인다'라는 추상적인 공유지점만 있을 뿐, 자치단체들이 처해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들이 회의의 의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인다'라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속적인 모임을 갖기에는 너무나 큰 '대의명분'이었다.

총회는 자치단체들의 보다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고민이나 문제의식, 요구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에게 힘과 도움이 되는 자리였으면 한다.

2. 1차 준비모임에서 논의되었던 당일 프로그램

구체적인 진행순서는 아직 미정.

①총여학생회 및 각 자치단체들의 소개

②총여학생회 사업기획안 발표 및 예산 문제에 관하여

▶총여학생회의 1년 사업기획안을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본다. 또한 총여학생회 예산 및 3월 결산을 보고하면서 자치단체들에게 지원할 예산 책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③여성학 세미나 - 내용 내지는 방법에 대하여 → Network의 이슈 / 커리개발, program개발

▶여성학 이론은 단지 이론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보고 어떻게 자신의 삶과 다른 여성들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을 모색하는 데에 기반이 된다. 그러한 만큼 어느 모임이든 시작 당시에는 세미나 커리 문제나 진행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공유해보고 서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논의해본다.

되도록 저학년 친구들의 속직한 이야기를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좋을 듯.

④각 모임의 물리적 상황(재정적, 공간적) 또는 위상

▶현재 자치단체들은 서로 각기 다른 위상이다. 그리고 단대 학생회와의 관계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 위상의 불분명함 내지는 위상 정립의 어려움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총여학생회가 어떠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보는 자리.

⑤지속적인 연석회의 필요성

▶방학 동안 진행했던(?) 연석회의의 애초의 의미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고 지속적인 연석회의의 필요성 여부를 논의해본다. 만약 그 필요성이 공유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만들기.

(③④⑤번은 자치단체 위주로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으며, 자치단체에서 발제를 간략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⑥뒤풀이!!

▶각 모임 대표들뿐만 아니라 성원들끼리도 친해질 수 있는 서로에 대해 조금이라고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게임(박수게임(가칭))과 함께 술자리를 만들어보자!!

the other의 문화공연.

3. 일정

매주 수요일(?) 마다 준비모임을 갖읍시다!!

총회는 4월 4일(토) 늦은 3시 경 (확정X) → 평일로 옮겨야!!

장소는 푸른샘 (확정X)

행사 전 주 동안 선전을 합니다.

④ 자료집을 만듭시다!!

동서 = 자치단체의 위상에 대한 문제제기

전해
선전
사업기획 초안 다음주

학내 성폭력자치규약제정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자치규약제정위원회(가칭)기획서 초안

발신: 장담

수신: 얼마나 일하는 여/성/주/의 제10대 총학생회 여러분

1. 목적 및 위상

지난 몇 년 동안 학내 성폭력 사건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성폭력 자치규약의 필요성이 학내 여성운동에 의해 문제제기 되었다. 그 이후 여성연대회의 table마련으로 성폭력 자치규약의 가안이 마련된 점과 제정운동에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선전이 되었다는 점은 지난 한 해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미 국민대의 경우에는 학교당국과 협상이 마무리된 상태이고 현재 중운위에서 자치규약 제정문제가 토의되고 있으며, 연대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몇몇 대학에서도 여론전을 펼쳐내고 있다.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단위에서도 새로이 연대회에 결합하는 상황을 살펴볼 때, 올 한해 학내 여성운동의 큰 쟁점으로 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운동에 대한 논의가 위치할 것이라는 예상은 쉽사리 할 수 있다.

현재 성폭력 자치규약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성폭력 자치규약 가안검토와 제정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성폭력 자치규약 가안은 연대회의 내에서 검토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연대의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위원회는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자치규약에 대한 선전과 여론화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후 자치규약의 보안작업이 끝나게 된다면 연대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정운동은 2~3년정도의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성폭력 자치규약위원회는 총학생회와는 독립적인 위상으로 확립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활동 기초

①대내적 활동

총여와 연대회의와의 관계 속에서 정보를 교류하고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활동을 풍부하게 나간다.

②대외적 활동

- ①성폭력 자치규약의 필요성과 자치규약에 대한 선전을 통해 여론화 작업을 진행
- ②자치규약으로서 성폭력 학칙에 대한 선전과 토론회 개최
- ③성폭력 전반에 대해 여성권 확보에 대한 여성주의 입장으로 개입(실제 사건에 관련한 연대활동, 여성주의 성교육 활동, 성폭력 상담소와 연계활동)

3. 구체적 활동 계획(1학기)

3월(셋째주~넷째주)	▶ 자치단체 및 개인에게 자치규약제정위원회 초동주체모임 제안
4월	▶ 초동모임 진행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성폭력 및 자치규약의 내용을 공유 ▶ 설문조사 ▶ 중간고사 이후: 대동제에서 성폭력을 쟁점으로 행사마련
5월	▶ 대동제: 자치규약제정위원회발족 및 행사(총여와 함께)
6~7월	▶ 지속적인 선전 ▶ 성폭력 주간 준비 ▶ 자치규약과 학칙에 대한 토론회마련

⊗ 서울대 위원회, 자료

// 홍남 (⊗ 글씨 → 기사과
자본



6기 한총련 건설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

97년은 질문을 던진 한해였습니다.

작년 연세에서 치루어진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이 김영삼정부의 전면적인 금지조치와 탄압에 부딪쳐 학생운동 사상 최대의 구속자를 내고 끝난 후에, 학생운동은 유래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여기저기서 다양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총련은 "연세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금 탄압에 맞서 싸워야 할 때이다"라며 어떠한 비판과 민주적인 의견수렴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범식 도중에 발생한 이석씨 치사사건은 학생운동 전체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공권력의 부당한 탄압이 정당성을 얻게되어 한총련의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학우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가두더니 마침내 한총련은 존폐의 위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97년은 질문을 던져야 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과연 학생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며, 현재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되어야 하는가?

작년 김영삼정권이 했던 것처럼, 외부의 강제적인 힘으로 한총련이라는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한 일입니다. 학생운동과 학생회의 혁신은 운동의 주체들과 대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권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한총련은 오히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다른 운동세력들의 비판도 학우들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루바 청년학생축전에 대표를 파견하고, 8월엔 또다시 통일대축전을 강행했습니다.

35대 총학생회는 지난 선거때부터 이러한 한총련의 비민주성과 낙후한 투쟁방향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만 연세인 앞에서 한총련과 결연할 것을 약속하고 새로운 학생운동과 학생회연합체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질문의 시기 97년을 돌아보며, 대답의 시기가 되어야 할 98년을 앞둔 저희들의 대답인 「학생회운동의 제3혁명」이었습니다.

대답의 시기 98년, 그러나...

지난 겨울방학때부터 재한적이나마 학생운동과 한총련운동의 혁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향들이 제출되었습니다. "한총련의 낙후한 사상적 기반부터 바뀌어야 한다.",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는 바뀌어선 안되며, 보다 대중적인 운동방식이 필요하다.",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운동은 지양되어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아직은 정말 많은 대중들이 그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는 그동안의 토론들이 겨울방학동안 벌어진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학생운동이 정말 대중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나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도 솔직히 인정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총련의 주류세력은 작년과 똑같이 이러한 비판과 혁신의 목소리를 전혀 받아들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총련 조직철서의 민주적 개혁이나 다양한 의견의 공존을 모색하기 보다는, "신념의 강자가 되어 반미투쟁으로 달려나갈"것을 또 다시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1. 반복되는 비민주성과 폐쇄성

얼마전엔 많은 논란 끝에 영남대학교의 손준혁 총학생회장이 한총련의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한총련을 혁신하기 위해 임시의장을 결의했다는 다른 총학생회장의 의지가 한총련 중앙집행부에 의해 무시되었다는 주장도 있고, 임시의장을

선출한 중앙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린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의 진위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대중적으로 알려진 바 없이 어딘가로부터 결정되었다는 임시의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시의장을 내정하였다는 중앙집행국은 누구로부터 그 권한을 인정받았던 말이며, 아무리 임시라고는 하지만 총학생회 연합의 대표자들 다수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려 들지 않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더구나 지금처럼 한총련의 권위가 떨어져있는 때라면, 권위적으로 임시의장과 중앙집행국의 권위를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기 보다는 아래에서부터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건설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수의 대학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기에 현재 선출된 한총련 임시의장은 무효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 이름이 한총련이 되었건 다른 이름이 되었건 학생회연합체의 미래로서 자리매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판2. “이땅이 미제의 식민지 동토대로 남아있는 이상...”

한총련 임시의장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있던 때에 발맞추어 한총련 중앙정책위에서는 지역,지구별 토론을 위한 한총련 총노선 초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토론용 초안이어서 비록 완결적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한총련이 97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98년의 운동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올 해 한총련의 핵심방향을 ‘반미투쟁의 전면화’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의 식민지 경제침탈의 본질을 직시하고 미국의 경제침탈을 분쇄하지 않는 한 한국경제 재생의 길은 요원하고 민중들의 고통만 가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고 하는 문구는 현재의 한국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보는 시대인식속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누히 지적되어 왔듯이 식민지라는 시대인식은 발전된 자본주의사회인 한국사회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협소한 투쟁방향으로 한국학생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6기 한총련 건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총학생회는 6기 한총련 건설을 중단할 것을 주장합니다. 지난해 한총련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평가하지도 않고 다수의 학우들에게 열려지지 않는 한총련의 건설은 전적으로 부당합니다. 한총련의 건설을 중단하고 현재 학생운동과 학생회대가 치해 있는 상황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중적으로 수렴하고 검증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무엇보다도 협소한 한총련의 운동방향을 극복하고 보편적 인간해방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6기 한총련 임시의장 선출을 무효화하고 패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총련, 각 지역총련의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한국학생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한총련이 그러한 공존의 모색없이 한총련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총학생회는 이러한 취지하에 한총련 건설에 반대하는 다른 대학의 총학생회장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총학생회장 연석회의를 제안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총학생회장단 연석회의에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래로부터의 논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탈퇴한 단위에 대한 처리의 문제, 96년과 97년 한총련에 대한 대중적 평가계획을 “임시체제”가 아닌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배제된채 “임시체제 건설, 혁신의 모범 창출”은 공허할 뿐입니다.

논쟁과 정점 형성을 위한 문서입니다.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6기 한총련 건설을 반대한다.

**“한총련의 세습화를 위한
비민주적, 패권적 총련질서 건설논의는
대중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0. 들어가며

조직의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조직의 화석화가 진행되어가는 징후에는 몇가지가 있다. 세습화를 꾀한다던가 독단을 넘어서 무형과 유형을 가리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총련 6기건설의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중집인선의 퇴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학우대중들의 한총련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에도 한총련은 꾀꿀했다. 이러한 모습들이 조직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음에도 이에선 아랑곳하지 않은채 질주하는 지금의 한총련은 흡사 '브레이크 없는 경주차'를 연상케 한다.

현재 지역총련 및 한총련구성은 지금까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34개 지역과 한총련의장을 놓고 의장 경선이 있을 듯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6기 한총련건설'을 주장하는 세력에 의한 총련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 한총련은 현재 어디로 가는가?

한총련과 연북적 통일운동에 대한 비판은 학생운동만이 아니라 전체운동내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그러한 비판은 96년 연세대 사태, 97년 한총련 출범식에 이후 한총련에 쏟아진 이데올로기적공세속에서 더욱 증폭되었지만, 한총련은 이미 그러한 비판을 담아낼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었다. 오히려 6기 한총련과 지역총련의장선출과정에서는 더욱 비민주성과 연북성을 드러내면서 변화를 수용해낼 수 없는 조직으로 화석화되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한총련 주류는 낙후한 사상을 이념적 무기로서 또한 10년전과 하등 달라지지 않는 전략으로써 그리고, 국가주의적 대리통치와 조직내 민주주의가 사라진 일파압적 조직형태로써 현실을 재단하려는 오류를 계

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그러한 인식에 기반한 운동은 필연적으로 현실의 다양한 모순들로부터 발생하는 운동들을 억압하는 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그들은 이제 한총련이라는 대표성을 통해 학생회를 진두지휘하고 연북적 통일운동을 지향하기 위한 조직의 세습화까지 꾀하고 있는 개탄스러운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여전히 그들의 반성없는 모습, 대중이 처한 현실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모습은 학생운동의 선도성과 학생운동의 역사라는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로 치장된 채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경주차를 연상케 한다.

2. 연합체 운동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현시기 한총련으로 대표되는 학생회연합체운동은 이제 그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각급단위의 학생회를 단지 전투적인 공간으로 인식하는 태도속에서 대중들은 소위 변혁운동이라는 것의 수동적인 공간이자 전투원이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나마 각급학생회의 위기는 한총련에 대한 정권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탄압을 불러오기까지 했다.

학생운동은 이제 학생운동의 근본적인 부분으로부터 성찰이 필요하다. 언제까지나 간부들의 혁신을 운운하며 운동의 부활을 기다릴 것이며, 언제까지나 대동단결만을 외치면서 조직의 민주주의를 사장시킬 것인가? 현시기 대중들의 무관심이라고 하는 운동과 대중과의 결합력의 위기에 대해서 무관심한채로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대한 열정만을 강요할 것인가?

한총련운동의 근본으로부터 대중들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에서 운동은 그 설자리를 잃기마련이며, 필연적으로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3. 신자유주의 재편의 가속화

김대중 정권의 등장과 남한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을 포함한 사회 어느곳 하나도 무한경쟁의 노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발전이라는 이데올로기속에서 인민대중의 저항은 무력화되어 가속화된 경쟁의 장에서 노예로써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 즉, 사회 어느곳 한곳도 자본과 국가기구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없을 정도이다.

학생운동의 변화는 바로 변화한 남한자본주의의 현재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중이데올로기 지형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했을 때, 지금 한총련을 포함한 학생운동 전반의 상황은 어떠한가?

4. 학생운동의 재구성의 방향은 어디로

지금 총련의장선출과정에서 드러난 모습에서 보이듯 학생운동이 처한 대중적인 토양과 학생운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뒤로한채 단지 권력장악이라는 패권적인 모습만을 보이며서 대중들로부터 외면받는 길로 오히려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학생회연합체운동이라는 소위 큰 운동이라는 관념속에서 현실과는 괴리된채로 나아가고 있는 한총련과 학생운동의 모습은 단호하게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학생회연합체운동의 전국조직으로써 한총련운동은 새로운 연대의 실내용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으로부터 새로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운동을 학생회나 학생회간연합조직으로 소급함으로써 독점화, 관료화됨으로 과거의 영광만을 되뇌이거나 모든 운동에 적실하게 필요한 대중과의 융합을 관념적으로만 해소하려는 경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운동가들의 빈약한 상상력, 학생회운동이외의 대중운동에 대한 배제만을 재생하는 현재의 운동방식은 바로 운동이 현실의 변화한 상황을 적확하게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총련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아니 더 이상 현실과 융합하지 못하는 낡은 이념의 포로가 된 한총련주류의 운동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변화는 단지 '한총련의 개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권력의 중심에 새로운 중심을 가져다놓는 것으로는 한총련의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이름을 바꾼다 하더라도 역성혁명의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한총련운동의 근본적인 혁신은 한총련 주류에 대한 가감없는 비판 그리고 학생회를 중심으로한 운동만이 아닌 대중과의 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현실의 모순지점에 대한 착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회를 중심으로한 운동이 모든 운동의 전부가 될 수 없기에 더더욱 그러한 것이다.

단지 한총련혁신이라는 문구가 아니라 그 근본으로부터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학생운동의 재구성이 지금의 학생운동에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하겠다.

한총련의 혁신과 진로 모색은 선언적인 백만의 참여가 아닌 바로 백만의 손과 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지금까지의 상황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수도권지역과 경인지역에서 한총련 혁신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 '연석회의(대표자회의)'가 구성되었다고하며 이 회의에 서울지역에서는 10여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남부는 5~6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는 상반되게 영남대총학생회장이 한총련의장을 결의한 상황이고, 각지역별로 '6기한총련건설'에 동의하는 임시지역의장이 구성되었다고 한다. 97년 학생운동은 전대협·한총련의 역사상 아니 남한 운동의 역사상 초유의 대중조직에 대한 이적단체규정과 각급학교 한총련대 의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구속/수배 및 탈퇴강요라는 사건을 접하였다. 하지만 정권의 가공할 탄압앞에서 정권의 탄압과 학생운동진영의 공동의 대응조차 진행하지 못한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치루어진 각급단위 학생회선거결과는 학우대중들의 한총련에 대한 회의와 반감을 그대로 드러내 준 사건이었다. 97년 한총련출범식사태이후 학생운동진영의 분할은 가속화되었으며, 무수한 한총련혁신의 주장들이 쏟아져나왔다. 하지만, 한총련중앙간부인선과정에서 그리고 총련별임시의장직 구성에서 보여진 일련의 사건들은 한총련의 혁신이 학생운동내에서 전혀공론화되지 못하고 학생운동세력내의 패권다툼과 추악한 권력의 재생산을 둘러싼 세력싸움으로 치달고 있음을 목도하게 되었다.

2. 한총련의 권력장악만을 위한 추악한 권력다툼을 반대한다.

사실 한총련내의 갈등은 패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방식과 봉쇄된 사상투쟁에서 비롯된 여타세력과의 갈등을 '대동단결'을 외치면서 투쟁과 주체의 의지만을 강변해왔던 한총련내의 폐쇄적인 분위기속에서 폭발하지 않을래야 않을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간부인선과정과 지역총련의장결의과정에서 보여진 것은 한총련이 지난시기의 과오에 대한 반성은 커녕 더이상 전국학생운

동의 대표조직 또한 백만학도의 조직이기를 포기한 화석화된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생각을 더욱 공고하게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한총련이란 조직내에서 민주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었던가? 단지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정치적견해는 묵살당하였으며, 심지어 조직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또한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하지도 못하는 낡은 정세관으로 현실을 재단하는 한총련의 운동방식은 운동의 발전에 질곡으로 다가오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이러한 상황이 연석회의를 정당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의 연석회의는 그 목적과 위상마저 불확정할 뿐이 아니라 그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조차도 학생운동의 혁신과 현재 학생운동의 위기를 타개해나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모아내는 것보다는 한총련내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하는 양태로 경도되어가면서 한총련주류와 첨예한 대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모습은 자칫 연석회의를 정치적 흥정의 자리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하겠다. 연석회의와 한총련주류는 현재의 학생운동을 바라보는 무수한 눈이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97년 학생회선거에서 보여진 학우들의 학생운동과 한총련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뼈속 깊숙히 각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서 소중한 자산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는 학생운동의 자랑스런 역사이다. 전대협-한총련의 11년 역사는 언제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치열한 고민과 사상투쟁, 그리고 민중들과의 강인한 연대를 통해서 그러한 위기를 극복해왔다는 역사성이다. 다른 하나는 바로 학생운동의 주체들과 학생운동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민중형제들이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학생운동은 없었을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학생운동의 모습은 이모든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내부적 혼란과 분열, 패권적인 조직운영, 그리고 감정적인 반목질시로 가득차 있다. 학생운동의 기반이 휘청할 정도의 가공할 탄압을 겪고 난 뒤의 학생운동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심각한 패권과 배제의 상황으로 학생운동은 치달고 있을뿐 아니라 더더욱 위기의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한다. 정리하고 입법화가 이루어졌다고해서 사회적 화합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 아니다. 지금 노동현장에서, 철거촌에서는 버젓히 '화합과 고통분담'이라는 수식어를 무색케할 만큼 착취와 탄압은 계속되고 있으며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조차도 계속되고 있다. 학생운동의 분열은 필경 학생운동에 대한 각개격파로 이어져 결국은 학생운동의 존재의 위기까지 불러올 것이다. 더군다나 학우대중들로부터 '운동권조직, 나와는 상관없는 조직'으로 여겨지고 있는 한총련이 학우대중들의 힘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학생운동의 분열, 한총련에 대한 반감, 정권의 항시적인 탄압이라는 위기의 3중주에 맞춰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겸허하고 진지한 성찰을 가가야 할 것이다.

3. 학생회운동의 연대의 근거와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쌍 위기를 말해왔다. 언제나 위기의 극복을 운운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먼저 내세우는 혈기넘치는 일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기란 언제나 우리가 지나고난 뒤에라야 보다 분명한 모습으로 우리앞에 나타나기에 그것이 진정위기였음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의 학생운동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학생운동의 역사는 항상적인 위기와 희망의 갈등의 역사였고, 그러한 갈등들이 지금의 학생운동을 있게 한 원동력 그 자체였다. 98년 우리는 한총련의 위기를 보다 분명한 목소리로 운운한다. 한총련의 진로에 대

한 우리의 결정은 학생운동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학생운동은 현재 위기의 3중주에 처해있으며, 이러한 것은 객관적인 것이다. 이보다 더 분명한 위기의 징후는 없을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나가는가는 앞으로 학생운동의 미래가 걸린, 아니 미래와 관한, 아니 학생운동의 과거를 현재에도 계속 이어나가는 문제이다. <이러한 때에 과거의 역사에 매몰되어 학생운동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자신감과 과거의 향수에 매몰되는 태도나 한 세력을 배제한 상황에서 우리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태도는 노인의 소일거리에 다름아니며 결단코 위기를 타개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연석회의는 후자의 모습에 가까울 것이며, 한총련의 모습은 전자에 가까울 것이다>

지금 학생운동은 96년 연세대사태, 97년 한총련출범식과정과 이후에 빚어진 크나큰 시련과 남한 민중들에게 비명을 강요하는 생존권압살이라는 상황이 초래한 민중들의 침묵의 강요라는 상황속에서, 학생운동의 살길을 모색하는 것과 학생운동의 과거에 대한 냉엄한 성찰에 기반해서 미래를 던져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고민하는 것일 것이다. 함에도 이러한 것을 간파하는 그 어떤 세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단호하게 비판하고 버려내야할 것이다.

한총련의 혁신을 바라는 세세력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명확히 해야할 것입니다

하나, 현시기 진행되고 있는 한총련건설논의는 학우대중들의 동의 및 교감속에서 이루어져야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출범식사태 및 학생회선거결과를 냉엄하게 반추하지 못한채 진행되고 있는 은밀한 한총련건설논의는 즉각 중단되어 전체 학생운동의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둘, 지금 각 지역별로 연석회의 형태로 한총련건설에 반대해서 각학교의 대표자들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모임인 회의자리가 단지 지역총련의장선거나 한총련의장선거에 대한 논의로 한정되어 학생운동 내 세력다툼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것에 우리는 심대한 우려를 표하며, 회의의 위상과 목적을 보다 분명한 상황에서 회의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공개적이면서도 이후 한총련진로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회의테이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 한총련의 혁신논의를 위한 대표자회의는 대중들의 한총련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직시하고 학생회연대의 근거와 변화된 지형에 맞는 학생회운동의 연대의 내용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하의 연석회의라고 명명된 각 지역 회의는 이상을 분명히해나가야 할 것이다.

4. 연세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

(1) 6기 한총련의 진로모색

세력다툼으로 치닫으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논의가 사장된 6기 한총련 구성에 대해 보다 책임성있고

지난 시기에 대한 반성에 기반해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2) 현재까지의 6기 한총련에 대한 논의공개

지금까지 통신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리고 각급 회의에서 진행된 한총련에 대한 논의를 연세인에게 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한총련에 대한 논의를 대중적으로 알려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총련에 대하여 대중운동공간이면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입장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학생운동의 혁신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학생운동의 혁신의 내용이 한총련의 사수인지, 아니면 한총련의 새로운 권력을 세워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회 연대의 새로운 내용과 대중운동연대질서까지 고민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관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현재 학우대중들로부터의 외면과 무관심, 대학이 무한경쟁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5) 민중의 권리 옹호를 위한 실천들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학생운동의 혁신은 민중의 권리 옹호를 위한 실천과 별개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현 IMF정세에 맞서 각 대중운동공간에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제 6기 한총련 건설논의 중단과 대중적인 한총련의 진로모색을 촉구하는
연서운동을 제안합니다.

1. 제안배경

현시기 학생운동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세습화의 경향까지 보이고 있는 한총련 6기 건설논의가 대중들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기에 일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총련건설과 한총련건설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은 단지 이름날리기식의 총련의장직을 둘러싼 권력장악으로만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현시기에 적실히 필요한 것은 대중의 이름으로 한총련의 봉쇄된 논의구조, 화석화된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대중들로부터 시작하는 학생운동 변화의 상에 대한 토론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연서사업을 제안합니다.

'한총련 6기 건설'논의 중단과 대중적인 한총련의 진로모색을 촉구한다.' 는 제하의 연서사업을 시작해 나갔으면 합니다.

2 사업의 의의

- (1) 패권적/비민주적 한총련 6기 건설논의의 재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 (2) 한총련의 혁신을 단지 한총련 권력다툼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닌 대중적인 논쟁의 촉발과 논의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 (3) 학생운동내의 죽어버린 민주주의를 회복해나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 (4) 기간 학생운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이후 학생운동의 재구성을 위한 논쟁을 만들어나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3. 마치며

학생운동을 하는 누구도 기간 학생운동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간 한총련에 가해졌던 무수한 비판은 이제 대중들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한총련과 학생운동의 혁신은 학생운동내의 치열한 논쟁과 사상투쟁, 그리고 국가적인 대리통치의 발상으로부터 벗어날 때에라야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총련과 학생운동의 혁신을 위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성은 학생회 중심을 넘어서는 새로운 학생회 연대운동과 대중운동연대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중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현재의 연대투쟁을 힘있게 벌여내는 것일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과 함께 힘있게 연대투쟁하겠습니다.

제 6기 한총련 건설반대와 대중적인 한총련의 진로모색을 촉구합니다

97년 한국학생운동은 남한 운동의 역사상 초유의 대중조직에 대한 이적단체규정과 각급 학교 한총련대의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구속/수배 및 탈퇴강요라는 사건을 접하였습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이하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현시기 학생운동진영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이는 비단 누구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한총련에 대한 대중들의 회의와 반감이 드러난 것이었으며 이는 학생회 선거에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시기 한총련 중앙 간부인선 과정에서 그리고 총련별 임시의장직 구성에서 보여진 일련의 사건들은 한총련 혁신이 전혀 공론화되지 못하고 세력다툼과 권력의 재생산을 둘러싼 세력싸움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총련이 건설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연석회의(각 학교 총학생회장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또한 앞의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시기 학생운동은 학생운동의 분열, 한총련에 대한 반감, 정권의 항시적인 탄압이라는 위기의 3중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기에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겸허하고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남한 민중들의 생존권압살이라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운동의 길을 모색하는 것과 학생운동의 과거에 대한 냉엄한 성찰에 기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총련의 화석화된 민주주의를 넘어서고, 대중들로부터 시작하는 학생운동 변화의 상에 대한 토론과 학생운동의 혁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현시기 진행되고 있는 한총련건설 논의는 학우대중들의 동의 및 고감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은밀한 한총련건설논의는 즉각 중단되어 전체 학생운동의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둘, 지금 패권적/비민주적 한총련 6기 건설을 반대한다.

셋, 한총련의 혁신을 단지 한총련 권력투쟁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닌 대중적인 논쟁의 촉발과 논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넷, 지금 각 지역별로 연석회의 형태로 한총련 건설에 반대해서 각 학교 대표자들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이 회의자리가 단지 지역총련의장선거나 한총련의장선거에 대한 논의로 한정되어 세력다툼의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회의의 위상과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공개적이면서 이후 한총련전론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테이블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 한총련의 혁신논의를 위한 대표자회의는 대중들의 한총련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직시함과 더불어 변화된 지형에 맞는 학생운동의 새로운 연대의 내용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 우리는 한총련과 관련한 논의를 대중들에게 공개해 나가고 대중들과 함께 이후 전론을 모색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대학교	단대	과	소속단체(지위)	이름	서명